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 제주 방언 상대 높임 표현과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

우창현(대구대)

<차 례>

1. 서론
 2. 입력 강화
 3. 제주 방언 교육에서의 문법 표현 교육 방법
 4. 결론
-

【벼리】 이 글은 최근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제주 방언 높임 표현과 양상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입력 강화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입력 강화의 여러 방법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입력 강화의 여러 방법 중에서 주로 ‘입력 홍수(Input Flood)’,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 ‘구조화된 입력 활동(Structured Input Activities)’,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입력 강화의 방법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 방언의 높임 표현과 양상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주로 ‘입력 홍수’ 기법과 ‘텍스트 강화’ 기법 그리고 ‘구조화된 입력 활동’의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 입력 강화,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구조화된 입력 활동, 제주 방언

1. 서론

최근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결혼이민자의 수가 2013년 현재 23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 그리고 이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를 보면 서울이 약 5만 명 정도이고 그 외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각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해당 지방 방언에 노출되어 있어 지방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 방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상황이다.²⁾ 그리고 실제 이들 결혼이민자와 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방언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³⁾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표준어로 제작되어 있어 효율적인 방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는 표준어로 된 한국어 교육용 교재를 활용하여 방언 교육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표준어 교재를

1) 안전행정부 2013년 7월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로 구분하고 있다. (단위: 명)

통해 방언을 교육할 경우 어휘나 문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근 언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입력 강화 기법은 2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언어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 문법 교육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문법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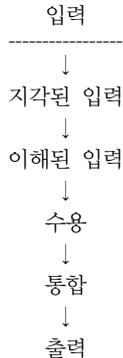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소계
합계	147,591	83,929	231,520
서울	30,775	18,476	49,251
부산	6,619	3,582	10,201
대구	4,514	2,196	6,710
인천	8,486	5,293	13,779
광주	3,089	1,624	4,713
대전	3,440	1,469	4,909
울산	2,751	1,765	4,516
세종	437	168	605
경기	40,208	24,196	64,404
강원	3,865	2,217	6,082
충북	4,693	2,566	7,259
충남	7,497	3,871	11,368
전북	5,795	3,357	9,152
전남	6,861	3,436	10,297
경북	7,470	3,896	11,366
경남	9,288	5,197	14,485
제주	1,803	620	2,423

- 2)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이영미(2009), 김금하(2010), 김민호(2010), 임형통(2012) 등 방언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3) 국립국어원(2009),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참고.

2. 입력 강화

입력 강화는 최근 제 2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⁴⁾ 특히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입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충분한 입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 즉 제2언어 입력에서 학습자들이 특정한 자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자질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중학 외 역(2011:13)에서 재인용)

- 4) VanPatten(2003)의 제2언어 습득 모델에 의하면 입력은 학습자가 자신이 들은 언어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언어 자료를 취하는 방식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이해한 의미를 해당 형태와 연결하는 방식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와 형태가 연결되었을 때 입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의미와 형태가 연결된 것을 ‘수용(intake)’이라고 한다. 이때 진정한 의미의 ‘입력’이 이루어진다. 즉 실제 학습자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한 의미를 형태와 연결시켰을 때 언어 습득에 필요한 입력인 ‘수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력’이 ‘수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Gass(1977, 서중학 외 역 (2011: 53-54)에서 재인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 Gass(1977)에 따르면 위 도식에서 ‘지각된 입력’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단계이고 ‘이해된 입력’은 학습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해한 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된 입력’이어야 ‘수용’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 5) 이 글에서는 주로 Wong((2007), 서중학 외 역(2011), ‘입력 강화’, 한국문화사)과 和泉伸一((2009), 윤강구 역(2012), Focus on Form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2언어교육, 인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입력이란 의사소통 상에서 메시지를 포함한 언어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입력은 일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해가 가능한 언어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력은 교실에서의 입력처럼 의사소통 교환이 있는 상호작용적 입력과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비상호작용적 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제된 상황에서의 언어 교육에 필요한 입력이라는 점에서 상호작용적 입력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⁶⁾

이처럼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요하게 역할하는 입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는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구조화된 입력 활동’,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이 있다.

먼저 ‘입력 홍수(Input Flood)’에 대해 서종학 외 역(2011)에서는 ‘언어 교수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특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적 특징을 가진 입력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학습자가 목표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충분한 양의 정보를 입력 홍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자료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필요한 어휘나 문법 항목을 포함한 특정 텍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⁷⁾

다만 입력 홍수가 어떤 표현이 맞고 또 어떤 표현이 결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어떤 표현이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다만 비상호작용적 입력 역시 언어를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언어 습득 과정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이때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력 자료에 어느 만큼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충분하게 입력을 제공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노출이면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의 수준이나 주당 시수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할 양을 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입력의 난이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나 문법 표현을 활용한 입력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력 홍수에서 명시적 설명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입력 홍수 기법을 활용한 과정 중심 교육의 특성이기도 하다.

다음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텍스트 강화’에 대해 서중학 외 역(2011)에서는 ‘텍스트에 있는 정보에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활자상의 차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만 있다면 볼드체나 이탤릭체 이외에 밑줄 긋기, 굵게 표시하기, 글자 크기나 스타일 바꾸기, 색깔로 표시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일 하나의 텍스트에서 두 개의 형태에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면 두 형태의 입력 강화 기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즉 제주 방언의 대표적인 시상 표현인 ‘-암시’와 ‘-아시’를 예로 든다면 ‘-암시’는 굵게 표시하고 ‘-아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두 형태의 입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 동사 활용형에 밑줄을 긋고 해당 문법 형태를 굵게 혹은 이탤릭체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강화’ 기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목표 형태의 유형에 따라 입력 강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 값⁸⁾이 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시제 어휘가 있고 해당 시제 의미를 가지는 선어말어미가 있는 경우는 해당 시제 어휘의 의사소통 값이 크고 선어말어미는 의사소통 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그러나 해당 시제 어휘가 없는 경우는 선어말어미의 의사소통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법 형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소통 값을 가지는 내용어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어를 제

8) 의사소통 값이란 어떤 형태가 입력의 전체적 의미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사소통 값은 [+/-본유적 의미값]과 [+/-잉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본유적 의미값]을 가지면서 [-잉여성]을 가진 경우가 의사소통 값이 가장 크고 [-본유적 의미값]을 가지면서 [+잉여성]을 가진 경우가 의사소통 값이 가장 작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잉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법 형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있는 경우는 [+잉여성]의 값을 가지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없는 경우는 [-잉여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잉여성]의 값이 클 경우 학습자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부터 형태와 의미 연결을 해낸다. (서중학 외 역(2011:118-119))

거하여 보다 더 문법 형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의미 파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즉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⁹⁾

다음으로 ‘구조화된 입력 활동(Structured Input Activities)’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조화된 입력 활동’은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는 입력’으로 유의미한 정보 교환을 하도록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를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⁰⁾(서종학 외 역(2011:133~135))

마지막으로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는 긍정적 증거와 부정적 증거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 받고 교사의 문법 설명이 아닌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중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놓칠지도 모르는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고 동시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기법은 특히 문법 형태에 관한 명시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유용하다. 특히 입력 홍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종학 외 역(2011:138~146))

이상의 입력 강화 기법은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9) 이는 ‘입력 강화’ 기법이 과제 중심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10) 이러한 구조화된 입력 활동 개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한 번에 하나씩 하라,

둘째, 의미 초점을 유지하라,

셋째, 문장에서 연결된 담화로 구조화된 입력 활동을 통해서 문법을 가르칠 때 예는 먼저 문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넷째, 구두 입력과 서면 입력을 모두 사용하라,

다섯째, 학습자로 하여금 입력으로 무엇인가 하게 하라,

여섯째, 학습자의 처리 전략에 유의하라.

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입력홍수’와 ‘텍스트 강화’ 등의 방법을 함께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3. 제주 방언 교육에서의 문법 표현 교육 방법

표준어와 제주 방언 문법 표현 비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상대 높임 표현과 시상 표현, 그리고 양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세 문법 표현 중 입력 강화 방법을 상대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상대 높임 표현과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특히 이들 두 문법 표현에 대한 입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장에서 제시했던 입력 강화 기법 중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세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글은 여성결혼이민자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3.1. 상대 높임 표현 교육 방법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1’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제주 방언 높임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1’의 1과를 보면 인사하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인사하기의 경우 대표적인 높임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1과를 중심으로 상대 높임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입력 강화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고구술법 프로토콜 기법’과 ‘알아차리기 과제 활동’이다. 그러나 ‘사고구술법 프로토콜 기법’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알아차리기 과제 활동’은 학습자가 목표 형태를 알아차리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넣어서 실제 학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서중학 외 역(2011:164-167))

먼저 ‘입력 홍수’와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높임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²⁾ 논의를 위해 표준어로 구성된 교재 내용을 제주 방언 형태로 바꿔 제시하기로 한다.

수잔: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이에요.

홍매: 안녕하세요? 저는 홍매예요.

수잔: 만나서 반가워요. 이분은 누구세요?

홍매: 이분은 닛차난 씨예요.

〈표준어 교재〉

수잔: 안녕허우파? 전 수잔이우다.

홍매: 안녕허우파? 전 홍매우다.

수잔: 만낭 반갑수다. 이분은 누게우파?

홍매: 이분은 닛차난 씨우다.

〈방언형 변환 자료〉

다만 교재 내용을 제주 방언 형태로 제시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제주 방언의 높임 표현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제주 방언의 높임 표현 관련 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잔: 안녕허우파? 전 수잔이우다.

홍매: 안녕허우파? 전 홍매우다.

수잔: 만낭 반갑수다. 이분은 누게우파?

홍매: 이분은 닛차난 씨우다.

수잔: 닛차난 씨, 반갑수다.

닛차난: 안녕허우파? 전 닛차난이우다.

수잔: 만낭 반갑수다.

12)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와 같은 입력 강화 기법들이 실제 교육에서 효과가 컸다는 실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학 외 역(2011), 윤강구 역(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먼저 교재에 제시된 높임법 관련 내용보다 제공하는 입력 양을 늘렸다. 이는 2장에서 언급하였던 ‘입력 홍수’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때 새롭게 제공되는 늘어난 입력 내용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나 문법 표현 등은 되도록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도 학습자 수준이 초급인 점을 고려하여 되도록 빈도 수 높은 일반 어휘와 초급 수준의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입력 정보의 양을 늘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입력 강화 기법이 과제 중심 활동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내용이 기능 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즉 위 예문의 경우 ‘인사하기’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법 항목을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경우이다.

수잔: 안녕하오파? 전 수잔이오다.
 홍매: 안녕하오파? 전 홍매오다.
 수잔: 만남 반갑수다. 이분은 누게오파?
 홍매: 이분은 닛차난 씨오다.
 수잔: 닛차난 씨, 반갑수다.
 닛차난: 안녕하오파? 전 닛차난이오다.
 수잔: 만남 반갑수다.

여기에서 활용된 ‘텍스트 강화 기법’은 해당 글자체를 굵게 표시하면서 동시에 밑줄을 그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예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제주 방언 상대 높임 표현 ‘-우’와 ‘-수’의 용법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다만 어떤 경우 ‘-우’로 표현해야 하고 어떤 경우 ‘-수’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처럼 보다 구체적인 문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대조적 방법으로 제시하여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예들이 왜 옳은지 혹은 왜 그른지에 대해 두 명이 한조가 되어 활동하도록 하는 상호작용활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지시사항] 여러분은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른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세요. 단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어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옳고 어떤 문장이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1. 안녕허우파?
- 1'. 안녕허수파?
2. 홍매 씨, 반갑수다.
- 2'. 홍매 씨, 반갑우다.
3. 영이 씨, 전 수잔이우다.
- 3'. 영이 씨, 전 수잔이수다.
4. 어디 감수파?
- 4'. 어디 감우파?

위 예에서 1, 2, 3, 4는 옳은 표현이고 1', 2', 3', 4'는 그른 표현이다. 이때 1과 3은 앞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서 '-우'가 쓰여야 하는 경우이고 2와 4는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서 '-수'가 쓰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우'와 '-수'가 가지는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즉 '-우'와 '-수'가 가지는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제시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방법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즉 학습자 수준이 낮아 상호작용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먼저 ‘-우’와 ‘-수’의 문법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¹³⁾

3.2. 양태 표현 교육 방법

다음은 제주 방언 양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 방언 양태 표현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¹⁾을 보면 6과에서 양태 표현 ‘-겠’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겠’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 없이 간단한 활동으로만 소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양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충분한 입력이 언어 습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입력 홍수’ 그리고 해당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강화’를 활용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앞서의 상대 높임 표현 교육 방법과 같이 표준어로 제작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제주 방언 형태로 바꿔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교재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없어 적절한 대화 상황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한다.

수잔: 월요일에 무엇을 하겠어요?

홍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겠어요. 수잔 씨는 월요일에 무엇을 하겠어요?

13) 다만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은 별도의 문법 교육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언어 기능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학습자들은 문법 표현에 보다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문법 표현이 가지는 문법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잔: 저는 집에서 쉬겠어요. 닛차난 씨는 월요일에 무엇을 하겠어요?

닛차난: 저는 친구를 만나겠어요.

〈표준어 표현〉¹⁴⁾

수잔: 월요일에 뭐 허쿠과?

홍매: 전 한국어 공부허쿠다. 수잔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수잔: 전 집에서 쉬쿠다. 닛차난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닛차난: 전 친구 만나쿠다.

〈방언형 변환 자료〉

다만 상대 높임 표현 교육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처럼 수업 내용을 제주 방언 형태로만 바꾸어 제시한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제주 방언 양태 표현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방언 양태 표현 관련 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잔: 월요일에 뭐 허쿠과?

홍매: 전 한국어 공부허쿠다. 수잔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수잔: 전 집에서 쉬쿠다. 닛차난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닛차난: 전 친구 만나쿠다. 수잔 씨는 오늘 저녁이 뭐 허쿠과?

수잔: 집에서 저녁 허쿠다. 홍매 씨는 오늘 저녁이 뭐 허쿠과?

홍매: 전 드라마 보쿠다.

앞서 양태 표현 교육을 위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새롭게 더 많이 만들었다. 이는

14) 다만 실제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표준어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준어 표현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양태 표현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 방언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재의 예문을 수정하여 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상대 높임 표현 교육에 적용했던 ‘입력 홍수’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때 새롭게 제공되는 입력 내용 역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학습자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나 문법 표현 등은 되도록 지양하려 노력하였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법 항목을 보다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경우이다.

수잔: 월요일에 뭐 **허**쿠과?

홍매: 전 한국어 공부**허**쿠다. 수잔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수잔: 전 집에서 쉬**쿠**다. 닛차난 씨는 월요일에 뭐 **허**쿠과?

닛차난: 전 친구 만나**쿠**다. 수잔 씨는 오늘 저녁이 뭐 **허**쿠과?

수잔: 집에서 저녁 **허**쿠다. 홍매 씨는 오늘 저녁이 뭐 **허**쿠과?

홍매: 전 드라마 보**쿠**다.

여기에서 활용된 ‘텍스트 강화 기법’은 상대 높임 표현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당 글자체를 굵게 표시하면서 동시에 밑줄을 그어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예를 활용한 ‘말하기/듣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주 방언 양태 표현 ‘-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⁵⁾

다만 전체적인 활동이 문법 교육에만 제한되지 않도록 기능 교육에 초점을 둔 활동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입력 강화 기법이 과제 중심 활동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위 예문은

15) 이 경우 양태 표현을 ‘-크’로 제시할지 아니면 ‘-쿠’로 제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글의 목적이 정확한 문법 항목 분석에 있지 않고 제주 방언의 양태 표현 교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쿠’로 제시하기로 한다. 다만 향후 ‘-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제주 방언 양태 표현에는 ‘-쿠’와 ‘-크’가 있는데 상대방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쿠’가 선택되고 상대방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크’가 선택되는 것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과 말하기’ 활동을 하면서 해당 문법 항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쿠’가 가지는 문법적 특성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법 의식 고양 과제’ 기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즉 ‘-쿠’가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왜 ‘-쿠’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시사항] 여러분은 일과 관련 표현과 관련해서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각 다른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세요. 단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읽어주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옳고 어떤 문장이 그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1. 널 뭐허쿠과?
- 1'. 널 뭐허수과?
2. 널 친구 만나쿠다.
- 2'. 널 친구 만나수다.
3. 오늘 어디 가쿠과?
- 3'. 오늘 어디 가수과?
4. 어디 안 가쿠다.
- 4'. 어디 안 가수다.

위 예에서 1, 2, 3, 4는 옳은 표현이고 1', 2', 3', 4'는 그른 표현이다. 다만 1, 2, 3, 4와 1', 2', 3', 4' 모두 상대방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 쓰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의 문법 의미는 같다.

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 혹은 일과를 말할 때는 ‘-쿠’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나 ‘-우’를 사용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두 문법 형태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법 의식 고양 과제’ 활동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학습자가 ‘쿠’의 문법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교사는 두 문법 형태의 대조를 통해 ‘쿠’가 가지는 문법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 글은 최근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제주 방언 상대 높임 표현과 양태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입력 강화에 대한 이론적 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입력 강화의 방법 중에서 주로 ‘입력 홍수(Input Flood)’,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 ‘구조화된 입력 활동(Structured Input Activities)’,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입력 강화의 방법들은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 방언의 높임 표현 ‘수’와 ‘우’, 그리고 양태 표현 ‘쿠’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에서는 주로 ‘입력 홍수’ 기법과 ‘텍스트 강화’ 기법 그리고 ‘문법 의식 고양 과제’의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제주 방언의 문법 표현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말하기/듣기, 읽기/듣기 등에 대해 실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9), 「최신 문법교수 이론의 경향과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1-27쪽.
- 김금하(2010),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방언 병행 교육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김민호(2010),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언 교육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주(2009), 「한국어 교육에서의 과제 기반 형태 집중 연구 고찰」, 이중언어학 41, 이중언어학회, 83-110쪽.
- 서종학 외 역(2011), 『입력강화』, 한국문화사.
- 우형식(201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p. 99~128.
- 윤강구 역(2012), 『Focus on Form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2언어 교육』, 인문사.
- 이영미(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혜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18, 二重言語學會, p. 279~301.
- 이정희 외(2003), 「내용 중심 한국어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 211~232.
- 이정희 외(2003), 「최고급 단계 내용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 201~222.
- 임형통(2012), 「방언 노출 전략을 통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부산외대 석사논문.
- 정대현(2009), 「학습자 중심 형태초점교수 모형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34, 국어교육학회, p. 371~395.
- 정대현(2008), 「본문강화가 문법 형태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제 15권 3호, 담화·인지 언어학회, 103-126쪽.
- 채윤정 외(2010), 「FonF 연구의 최근 동향이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점」,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 333~359.

우창현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번지

053-850-6877, 010-2114-0812

wuch@naver.com

접수 일자 : 9월 1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 9월 16일 ~ 10월 16일

계재 확정 일자 : 10월 19일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education
make use of the technic of Input Enhancement
- focusing on hearer honorific expression and
modality expression of jeju dialect -

Woo Chang-Hyun (Daegu Univ.)

The aim of this thesis is finding the effective education of honorific and modality expression of jeju dialect with the use of the technic of Input Enhancement which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to theory of the second language education field.

This thesis, firstly, discusses to Input Flood, Textual Enhancement, Structured Input Activities and Grammar of Consciousness-Raising Tasks among the constituents of model of Input Enhancement(in abbreviation, I,E)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This thesis, the second, discusses that each method separately can be applied to the field of education or the two or more among methods can be applied to the one interactively. The third, clarifies system of honorific and modality expression education of jeju dialect before methodologies of I,E can be applied to the education of honorific and modality expression of jeju dialect. The result of this paper shall expect effect of improvement of foreign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 **Key Words** : Input Enhancement, Input Flood, Textual Enhancement, Structured Input Activities, Grammar of Consciousness-Raising Tasks, JeJu dialect